

반세기 전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한 미국흉부외과 의사 - Dr. George Schimert -

김 원 곤*

A Cardiac Surgeon from the USA who had Worked in Korea a Half Century Ago - Dr. George Schimert -

Won Gon Kim, M.D.*

Dr. George Schimert, born in 1918 in Switzerland, received his medical degrees from universities in Hungary and in Germany. After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he continued medical training at several hospitals. In 1956, for pursuit of cardiac surgery, he had joined the group headed by Dr. Walt Lillehei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During this period, in 1958, he join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a overall medical adviser and adviser in surgery for 15 months in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School. During his stay in Korea, in addition to the works in the medic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he contributed to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oracic surgery program. In August 6, 1959, he performed open heart surgery using cardiopulmonary bypass for an ASD pati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owever, the patient died 6 hours after the operation. In 1960, afte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he began his career at Buffalo General Hospital as the first director of its cardiac surgery program. In 1985, the Dr. George Schimert Lectureship and Medical Conference was established to honor his contributions and achievements. He died December 7, 2002.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8;41:189-201)

Key words: 1. Open heart surgery
2. History
3. Surgery

서 론

2000년 12월 미국 동부의 일부 지역신문 및 병원정보지에 한 미국 흉부외과 의사의 사망기사가 게재되었다 [1,2]. 일견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한 원로 외과 의사의 평범한 죽음으로 보이는 이 기사에는 우리로서는 쉽게 넘기기 힘든 어떤 경력에 대한 기사 내용이 다음과 같이 비중 있게 기술되어 있었다.

“Dr. Schimert는 미네소타 의과대학 파견으로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흉부외과를 확립한 후에 1957년

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심술을 시행하였다(In 1957, Dr. Schimert performed the first open heart surgical operation on the Asian continent after being selected to establish a thoracic surgery program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College of Korea in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School)”

과연 이 기술의 진위와 배경은 어떠하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Dr. Schimert란 미국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Fig. 1)?

1945년 한국이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논문접수일 : 2007년 9월 10일, 심사통과일 : 2008년 3월 26일

책임저자 : 김원곤 (110-744) 서울시 중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Tel) 02-2072-2346, (Fax) 02-747-5245, E-mail: wongon@plaza.snu.ac.kr

본 논문의 저작권 및 전자매체의 지적소유권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있다.



Fig. 1. Dr. George Schimert.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큰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당시의 정치지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재건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땅에서 미국의 도움은 원조의 형태로 더욱 현저하게 진행되었다.

이른바 미네소타 프로젝트(The Minnesota project)는 당시 이러한 미국 원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1961년(공식 계약 기간: 1954.09.28~1961.06.30)까지 당시 한국의 대표적 국립대학이었던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재건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주관은 당시 미국 정부 산하의 해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FOA)와 그 후신인 국제협력본부(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미네소타 대학교가 실무 사업진행자로 선정되면서 이후 통칭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불리게 되었다[3].

공식적으로 국립서울대학교 협력사업(Seoul National University Cooperative Project)으로 이름 지워진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교환교수 프로그램, 시설복구 및 장비지원 등이었으나 그 중의 핵심은 단연 인적 교류 부분이었다. 이른바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의해 의대, 공대, 농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총 226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3개월에서 4년까지 미네소타 대학으로 연수를 다녀왔고 미네소타 대학으로 부터는 자문관의 형태로 총 59명이 한국에와 당시의 선진 교육체제 및 과학기술을 전수하였다.

이러한 미네소타프로젝트의 성과는 의과대학에서 인

적, 물질 모든 방면에서 가장 뚜렷하였다. 그때 의과대학에서는 모두 77명의 교수요원들이 3개월에서 4년까지 미네소타대학 연수를 다녀와, 당시의 첨단의학을 직접 보고 한국에 전수하였다.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한국에 파견된 자문관 중 의과대학으로는 모두 11명이 배치되어 의학지식 및 기술의 전수뿐만 아니라 당시 전반적인 의료행정의 개선 및 학교육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문관 파견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초기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한국 장기 상주 자문관 파견은 1957년 10월부터 이루어졌다. 이때 1958년 7월 7일부터 1959년 10월 7일 까지 외과 분야 자문관 및 3차(총 4차 중) 의과대학 총괄자문관(overall adviser in Medicine and Adviser in Surgery)으로 활동한 Dr. George Schimert도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Dr. Schimert는 당시 의학교육, 의료행정, 임상진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본인의 전공 분야인 흉부외과학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여와 족적을 남기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반세기 전 해방 및 6.25 동란의 여파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당시 한국의 의료계에서 초창기 흉부외과의 정립에 인상 깊은 활동을 벌였던 한 미국 의사에 관한 연구 기록이다.

대상 및 방법

이 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이왕준의 박사학위 논문인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의 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3].

Dr. Schimert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조사는 당시 미네소타 대학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 동안 정기적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작성하였던 '6개월 간격 진행 보고서[4]'와 함께, Dr. Schimert가 임기를 끝내면서 작성하였던 '최종보고서[5]'가 참고 되었다. 6개월 간격 정기보고서는 당시 미국 미네소타 대학 현지조정관이었던 Tracy F Tyler와 한국 파견 수석자문관 Arthur E. Schneider가 각각 작성한 문건을 하나로 묶은 문서로 6개월 단위로 작성되었는데 1955년 4월 19일 일차분이 작성되었다. 총 14차의 진행보고서는 전술한 이왕준박사의 도움으로 입수되었다. 자료 입수 후 일차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Dr. Schimert 관련 기술이 있는 8, 9, 10, 11차의 네 차례 보고서가 자세히 분석 되었다. Dr. Schimert의 최종 보고서는 다른 경로로 입수되었다.

Dr. Schimert의 한국 파견 배경 및 미국 귀국 직후의 상황에 관한 연구는 미국 Princeton 대학의 젊은 사학자인 John P Dimoia의 도움으로 미네소타 대학 기록보관소를 통해 입수한 1958년~1962년 사이에 Dr. Schimert를 중심으로 오고갔던 총 25편의 서신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6].

그 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실사,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Dr. Schimert의 학위논문 및 그의 개인 이력서, 기타 관계자 증언 등이 참고 되었다[1,2,7,8].

Dr. George Schimert

1) 출생 및 유럽에서의 생활

Dr. Schimert는 1918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뒤 가족을 따라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사를 가 그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가문의 전통을 따라 의업의 길을 선택한 그는 독일의 Freidrich Wilhelm University(1942)과 헝가리의 Pazmany Peter University(1943)에서 각각 의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당시 발발한 세계 이차대전으로 의사로 종군 복무하였던 그는 종전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2) 초기 미국에서의 생활

미국에서 Dr. Schimert는 플로리다 주 Tampa 시의 Tampa Municipal Hospital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 뒤(1949.11~1950.11), 이듬해인 1951년부터는 Atlanta 주 Emory 의대의 Grady Memorial Hospital에서 병리(1951.1~1951.7) 및 일반 외과(1951.7~1953.7) assistant residency를 수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1953년 5월에 시행된 심폐기를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성공 소식을 듣고 흉부외과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흉부외과 수련은 Maryland 의대에서 받았는데 1953년 7월부터 1955년 7월까지 2년 동안 당 대학병원, Baltimore 시립병원, Mercy 병원 등에서 수련이 이루어졌다. 수련 직후인 1955년 7월부터 1956년 7월까지의 Maryland 대학 병원에서 흉부외과 펠로우를 지내게 된다.

3) 미네소타 대학 시절

Maryland 대학병원에서의 생활 후 Dr. Schimert는 당시 심장외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미네소타대학에서 심장외과에 관한 추가 연수를 받기로 결심하고, 1956년 9월부터 동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Dr. Lillehei의 지도하에

펠로우 생활을 시작하였다. 펠로우 과정은 그 후 1958년 7월까지 거의 2년간 진행되었는데 그와 한국과의 인연은 바로 이 과정 중에 이루어지게 된다.

4) 한국 자문관 파견 과정

Dr. Schimer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자문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에 파견되었는가에 대한 완전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의 정황을 단편적이거나 알려주는 귀중한 문서들이 남아있다. 이는 당시 미네소타 대학 내에서 Dr. Schimert의 파견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일련의 편지들이다[6].

먼저 1958년 1월 27일 자료 된 편지에서 당시 미네소타의대 학장이었던 Dr. Diehl은 Dr. Schimert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있다.

“나는 자네가 우리가 애초에 토의한 것과 달리 이번 봄에 한국에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있네.....(중략). 이번 한국에 가는 일은 미래의 학문적 경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되리라는 것이 내 의견이네.....(중략). 물론 나는 자네가 자네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길 희망하네(I was disappointed to lear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 may not go to Korea this spring as we originally discussed..... The proposed assignment in Korea would, in my opinion, constitutes an invaluable experience for a person interested in an academic career in the future..... I very definitely want you to do what you consider best but I hope you will give these thoughts some consideration in reaching your decision).”

이 글을 보면 이 편지가 있기 전 어느 시점에 한국 파견 자문관으로 Dr. Schimert가 추천 결정되었는데, 당사자인 Dr. Schimert는 당시만 해도 미지의 미개발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 일정 기간 파견 가는 문제를 무척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편지는 이러한 정황을 통고 받은 당시 미네소타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던 Dr. Wangensteen이 Dr. Schimert에게 보낸 것으로, 학장의 편지 며칠 후인 1958년 2월 3일 자료 되어 있다.

“자네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을 때 나는 같은 제의를 했던 Dr. Lillehei에게, 보낼만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었네. 그러나 내가 직접

나서 대신할 사람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지금 내 앞에는 자네에 대한 편지가 놓여 있네.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나는 자네가 수개월 전 자네가 약속한대로 한국에 반드시 가야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중략). 내키지는 않지만 나는 학장의 요구에 따라 우리 과에서 자네를 내 보낼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네(When you indicated to me sometime ago that you had preferred to stay here over going to Korea, I indicated to Dr. Lillehei who made the suggestion too that, it possibly could be arranged, granted that we could find an acceptable substitute. I myself, made a real effort to find a substitute. That effort failed. I have before me copies of correspondence between you, from Dean Diehl, as well as Mr Amberg. In the light of all this, I feel constrained to tell you that you must take on presently the responsibility of going to Korea that you accepted several months ago..... In the light of Dean Diehl's letter, I would have no alternative other than to terminate your appointment here, which I shall be very reluctant to do.)”

이 글에서 우리는 별도의 추가 설명이 없이도 Dr. Schimert가 한국에 자문관으로 파견되는 정황의 일부를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Dr. Schimert는 미네소타 대학의 의학 자문관으로서 예정 보다는 다소 늦게 그해 7월에 한국에 부임하게 된다.

5) 한국 자문관 시절

Dr. Schimert의 한국 파견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1958.7.1-1959.8로 예정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58.7.7-1959.10.7 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Fig. 2).

이 기간 Dr. Schimert의 활동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 있는 해당 기간의 ‘6개월 간격 진행보고서’와 그 자신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 Dr. Schimert의 활동은 의학 총괄자문관으로서 의료행정 및 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함께, 임상 쪽으로는 그의 주 전공 분야인 흉부외과 즉 심장 및 폐 수술에 대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Dr. Schimert에 관한 ‘6개월 간격 진행보고서’ 상의 최초의 기록은 1958년 10월 19일자로 작성된 제 8차 진행보고서에서이다[10]. 이 보고서에서 미네소타 대학의 한국 파견 전체 수석자문관이었던 AE Schneider는 다음과 같이 Dr. Schimert에 관해 간략하게



Fig. 2. Dr. George Schimert & Mrs Schimert with Korean staff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his stay in Korea between 1958 and 1959.

기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과학 교실은 미네소타에서 심장수술 연수중인 스태프(고 이영균 교수-저자 주)의 연장체류에 동의하고 외과자문관으로서 Dr. Schimert의 부임을 준비하고 있음. Dr. Schimert는 이곳에서 흉부외과 세미나의 개설, 강의 및 각종 흉부외과 수술 시범을 담당할 예정이다.

(The Department of Surgery agreed the extension of one of its staff studying cardio-vascular surgery in Minnesota, prepared for the arrival of Dr. Schimert as their Adviser in Surgery, oriented him to their activities, initiated thoracic surgery seminars under his guidance, arranged for him to begin lectures to the Senior Class, and made possible a number of thoracic surgery demonstrations by him).”

이 후 Dr. Schimert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그의 한국 체류 기간과 일치하는 제9차 및 10차 ‘6개월 간격 진행 보고서’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고 있는데 우선 9차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있다[11].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한국에 와 있는 3명의 스태프들이 각각 3명의 이곳 고아들을 입양하였다...(중략) Dr. Schimert 부부도 같은 한국 보사부 입양 기관을 통해 5살 된 한 소년을 입양하였다.

(Three Korean orphans have been adopted into the families of staff members who served in Korea under the Minnesota contract.....Dr. and Mrs George Schimert who are presently in Korea under contract auspices adopted a 5-year-old boy recently through the same agency).”

당시 미네소타 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내과, 마취과, 간호학과, 의료행정, 생리학, 외과 등에 모두 8명의 자문관을 파견하고 있었다. Dr. Schimert는 외과자문관 이외에 의과대학 총괄 자문관을 겸하고 있었는데 9차 보고서에서 그는 당시의 상황과 한국 스텝 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평가를 남기고 있다[12].

“Dr. Schimert는 한국과의 공동 노력으로 이곳에서 성취한 의료교육, 연구 및 행정 분야들의 변화들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스텝의 양성은 단기 평가보다는 다음 세대에 평가를 맡기는 장기 안목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Dr. Schimert views with optimism changes which have occurred in medical teaching, research and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Cooperative Project, though he cautions that the development of staff is a long-term proposition and that the full result of present efforts in this regard will be felt in terms of decades rather than during any period as short as the current contract, its final evaluation being left to the judgement of another generation).”

또 동일 9차 보고서에서는 미네소타 대학이 자체 평가를 통해 파견 자문관들의 성과를 열거하고 있는데 Dr. Schimert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3].

“인공심폐기의 셋업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 심장수술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흉부외과 수술의 시범, 철저한 수술 전 평가와 적절한 수술 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the setting up of an artificial heart and lung machine by Dr. Schimert, and the training of a Korean team in its use; the demonstration of practically all thoracic surgical procedures, including heart surgery, by Dr. Schimert, these demonstrations preceded by the usual thoroughgoing pre-operative evaluations and followed by the indicated post-operative care).”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6개월 간격 진행보고서’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술을 포함한 임상 활동 및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는 보고서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수술의 경우 기타 관련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중의 한 예로 1958년 10월 Dr. Schimert와 이찬범 교수에 의해서 승모판막 협착증에 대한 폐쇄적 판막

절개술이 시행된 바 있었으나 보고서 상 관련 기술은 없었다[14].

1959년 10월 19일 발간된 제 10차 진행보고서에는 먼저 Dr. Schimert의 한국에서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15].

“Dr. Schimert는 1958년 7월 6일에 1년 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후 3개월 연장 근무에 동의하였다. 1959년 10월 7일 한국을 떠나게 되어 후임자인 Dr. Gault 와 얼마간 같이 머무를 수 있었다.

(Dr. Schimert began his service of one year under the contract on July 6, 1958. Later, he agreed to serve an additional period of three months. By leaving Korea on October 7, 1959 he was able to provide a brief overlap with his successor as overall adviser, Dr.N.L.Gault).”

또 제 10차 보고서에는 Dr. Schimert의 시범교육 도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16].

“자문관은 지난 6개월 동안 대학의 지도 방법, 시술 및 과정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는데 특히 서양의학교육의 근간인 bedside teaching에 중점을 두었다. 많은 흉부외과 수술들이 스텝 및 학생들을 위해 시범 시행되었고...(중략) 이러한 시범교육은 외래에서도 시행되었다.

(The adviser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llege’s instructional methods, practices and procedures during the past six months, with emphasis on bedside teaching, the mainstay of Western medical education. Many thoracic surgical patients were used in demonstrating for both staff and students..... Demonstration teaching was also done in the outpatient department).”

같은 제 10차 보고서에는 Dr. Schimert의 흉부외과 활동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들이 묘사되어 있다. Dr. Schimert는 당시 팀 접근방식에 의한 새로운 진료 방식 도입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흉부외과 수술의 실적을 향상 시켰는지와 함께, 특히 수술 전 평가와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 그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내과-외과-방사선과의 합동 회의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술 환자는 현재 내과, 외과, 방사선과의 통합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회의에서는 병리 해부학, 진단문제, X레이 판독, 내과 및 외과적 처치, 심폐계통 변화, 수술 후 합병증, 경제적 문제, 문화적 규범, 그리고 행정적 문제 등이 논의된다. 이러한 회의는 아주 인기가 높아져 임상 각과를 연계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환자

를 X-ray로만 관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백 명 가까운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고 현재 많은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수술의 약 30%는 외과적 수기가 단계별로 토의되고 문제점들이 규명되어지는 시범 수술이었다. 6개월 정도 후에는 한국 교수진들이 스스로 도움 없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24시간 관찰이 시행되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워 수술 후 합병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Patients for surgery are now selected through combined medical, surgical and radiology conferences whereat are discussed subjects such as pathologic anatomy, diagnostic problems, x-ray interpretation, medical and surgical treatment, cardiorespiratory changes, post-operative complications, economic status, cultural mores, and administrative problems. These conferences have turned out to be quite popular, help to bridge departmental boundaries, and emphasize that the patient is a human being and not just an X-ray picture. As a result of these conferences close to one hundred patients were operated upon and there is a long waiting list. About thirty of these procedures were demonstrational operations in connection with which surgical techniques were discussed step by step and pitfalls elucidated. After about six months of this Korean counterparts have proceeded on their own with very satisfactory results.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paid by the Adviser to post-operative care. The results of round-the-clock observation were most gratifying; post-operative complications dropped markedly).

10차 보고서 기간인 1959년 8월 6일에는 Dr. Schimert와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팀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병명은 심방중격결손이었는데 Lillehei-Dewall식 심폐기가 사용되었다[18,19]. 환자는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수술 후 6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Dr. Schimert의 부고 기사에서 아시아 최초의 개심술로 언급된 1957년 수술은 이 수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연도 및 아시아 최초에 대한 언급은 '토론' 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지만 명백한 오류로 생각된다.

'6개월 간격 진행보고서' 상 Dr. Schimert에 관한 기록

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제 11차 보고서에는 폐 수술에 관해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20]. 한국 최초의 시청각 의학 교육 자료에 관련된 이 글은 당시 Dr. Schimert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였다.

"Dr. Schimert의 주도하에 한국동료들과 Syracuse 대학 시청각 팀의 도움으로 만든 '전폐절제술'이라는 제목의 의학영화가 1960년 1월 27일 상영되었다. 한국말로 된 이 칼라 필름은 한국의 첫 의학교육 필름이고, 적절한 트레이닝만 받으면 한국 의사들이 최신 현대 의학수기도 성공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필름은 한국 전체의 의학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medical movie, entitled "Pneumonectomy", the basic work on the planning and conduct of which was undertaken by former Minnesota Principal Adviser in Medicine, Dr. George Schimert with Korean colleagues and Syracuse University contract audio-visual personnel, produced by ROK OPI-USOM and film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produced at the hospital on January 27. This color film with Korean sound track is the first instructional medical film produced in Korea and demonstrates that Korean physicians can successfully, if properly trained, carry out modern, advanced technical therapeutic procedures in their hospitals. This film should prove to be helpful to the medical profession throughout Korea.)

1959년 10월 7일 작성된 Dr. Schimert의 최종보고서는 자문관으로서 그가 임기를 끝내면서 작성하였던 문서로서 개인의 임기 기간 동안 일어난 진행보고서들의 종합판인 셈이다[5]. 여기에는 흉부외과 관련 내용 이외에도 의과대학 총괄 자문관으로서 그가 느낀 의료행정,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이 되어있다. 이 최종 보고서는 기본적으로는 '6개월 간격 진행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 기술하고 있지만 진행보고서에는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

먼저 최종보고서에서 Dr. Schimert는 당시 서울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던 일반 흉부외과 분야의 시술 및 그 수준에 관해 요약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식도협착 수술에 관한 그의 언급이 매우 흥미롭다[21].

"현재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심하게 진행된 결핵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병변들로는 만성 농흉, 폐농양, 기관지암, 가성소다 식도협착 및 식도암이 있다. 심혈관계통 병변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전의 폐 수술들은 대부분 응급성 시술들이었고 가끔 절

제 및 흉곽성형술이 시행되는 정도였다. 가성소다로 인한 식도협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 식도수술에 관한 한 서양의 평균 외과 의사들에 비해 수기가 더 훌륭하다.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이전에는 흉막박피술, 폐농양에 대한 절제술, 폐암에 대한 전폐절제술 등은 성공된 적이 없었다. 심장수술의 경우 심낭막박피술 이외의 시술은 시행된 바 없었다.

(The most pressing problem is far-advanced tuberculosis. Other prevalent conditions are chronic empyema, lung abscess, bronchogenic carcinoma, lye structure of the esophagus and cancer of the esophagus and cardia. Cardio-vascular pathology is virtually untapped. Previous attempts at lung surgery were mostly limited to emergency procedures, occasional resections and thoracoplasties. Because of the great number of lye structures, a retrosternal esophagojejunostomy or colon interposition is done, with more skill than when similar operations are performed by the average Western surgeon. Decortication, resection of lung abscess, and pneumonectomy for carcinoma of the lung have not been done successfully befo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exception of pericardiectomy no other cardiac surgical procedure has been performed.)

당시 이렇게 흉부외과 영역의 임상활동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해 Dr. Schimert는 자체 분석 내용 및 개선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21].

“이전에 흉부외과 수술결과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수술 대상을 잘못 선택했거나 불완전한 사전 검사, 수술 기술상의 난이도, 잘못된 수술 후 관리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과의들이 외과전과를 꺼리거나 환자들이 수술 후 합병증을 우려하여 수술을 회피하는 현상이 이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과의, 마취과의, 외과 의료진들이 함께 이러한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협동 노력을 통해 활동적인 흉부외과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수개월이 관건이었지만, 초기의 성공으로 내과의들의 신뢰를 얻어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을 외과로 보내 주었다.

(The reasons for unsatisfactory results in chest surgery were poor selection, incomplete diagnostic work up, technical difficulties during operative procedures and poor post-operative treatment. Thus the reluctance of the internist to refer patients, and the fear of the prospective patients concerning protracte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as

quite understandable. Reviewing the situation with the medical men, anesthesiologist and the surgical staff, a combined effort was made to start an active chest surgical service. The first months were critical. With the initial success the confidence of the internist was gained and an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were referred for surgery.)

최종보고서에서 Dr. Schimert는 폐 수술 환자들의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기술로 생각된다[22].

“수술 후 환자들은 주의 깊게 관찰되었다. 폐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잔여폐의 재팽창 문제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음압흡인을 통해 해결하였다. 만일 흡인장치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심각한 합병증은 수술 직후 환자가 기침을 잘 하지 않아 점액전으로 기관지가 막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즉각 숙련된 처치가 따르지 않으면 수분 내에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 수술 후 24시간 밀착 관리의 도입으로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은 8%까지 감소하였으며 폐절제 수술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없었다.

(Du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patients have been carefully observed. The major problem in pulmonary surgery is the re-expansion of the remaining lung tissue. This is done by a continuous negative suction. Break down of the suction may seriously endanger the patient. Another grave complication is a mucous plug occluding the bronchial tree i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because of the inability or the reluctance of the patient to cough. A patient may be lost within minutes if expert care is not immediately instituted. The results of round-the-clock vigilance were very gratifying.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rate dropped to 8% and none of the pulmonary resections were lost.)

폐 수술에 이어 Dr. Schimert는 당시 미개척이었던 심장수술의 현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22].

“성공적인 심장수술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심장수술 환자들에게는 심도자를 시행하는데 심장챔버 압력, 산소용량 및 포화도 등이 측정된다. 이들 측정치들이 비정상이면 심장병이 있다는 증거다. 생리학 자문관인 Dr. Brown의 도움으로 만든 진단검사실에서 25례 이상의 심도자를 시행하였다. 이들 중 많은

환자들이 서울대병원 스텝들에 의해 수술되었다. 검사실 장비들은 연구와 임상에 다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Successful heart surgery is only possible when a correct diagnosis is established. The routine work up of the patient is done by cardiac catheterization. This involves measuring pressures as well as the oxygen content and saturation of the blood inside the heart chambers. Changes in these values are indicative of the type of pathology. With the help of E. B. Brown, Adviser in Physiology, we established such a diagnostic laboratory by training selected staff from the Departments of Pediatrics, Cardiology, Radiology, Radiology and the Central Clinical Laboratories. By now more than 25 catheterizations have been performed. A number of these patients have been operated on by the staff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Thoracic Surgery. The laboratory equipment, of course, is used in routine diagnostic work as well as research. a number of papers have been presented as the result of these activities.)

Dr. Schimert는 당시 의학교육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특히 전공 분야인 심장외과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23].

“가장 선호하던 방식은 심장수술 세미나였다. 세미나에는 내과, 외과, 방사선과, 소아과 스텝들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중략) 본인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이를 시각적 보조 교재로 줄곧 활용하였다. 심기형과 관련 자료들을 그림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어로 진행되어 따라 가기 힘든 세미나 중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쨌든 필수적인 목적은 달성되었다.

(The most favored presentations were, however, the seminars on cardiac surgery. These seminars were attended by medical, surgical, radiology and pediatrics staff members as well as by students interested in the subject.....Since the writer of this report is fond of drawing, this method was constantly used as a visual aid. By actual simple animation and ad hoc drawing of the essential defects with the changed pressure and fluid dynamic effects, this difficult subject aroused lively discussion which often necessarily proceed in the Korean Language and could not be followed. Nevertheless, the essential purpose was accomplished.)

그리고 Dr. Schimert는 당시 외래에서의 교육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환자 진료 참여에 대한 기술이 오늘날에도 흥미롭다[23].

“교수급 스텝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번 씩 외래를 담당하였다. 내 시간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였다. 외래에서 교수들은 신환 및 전과 환자들을 볼 뿐만 아니라 수술 환자들의 진료, 소규모 수술 등을 총괄하였다.....(중략) 종종 환자들은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을 싫어했지만 교수들의 도움으로 원활한 학생실습이 가능하였다.

(All senior surgical staff members have one day a week assigned at the outpatient clinic. My day was Friday morning, from 10 to 12 o'clock. here the senior member supervises the follow-up of postoperative patients, minor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seeing all new patients or diagnostic problems referred from other departments.Often the patients dislike to be examined by students but the presence of a senior staff member always sh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students to use what they have learned from books or previous lectures.)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병상 옆 지도법 (bedside teaching)’에 관한 당시 Dr. Schimert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24].

“병상 옆 지도법은 가장 가치 있는 서양식 의학교육 방법이다.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이 교육 방법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흉부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Bedside teaching is the most valuable mainstay of Western medical education. It is unfortunately not used to full advantag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medicine. I have used thoracic surgical patients for demonstrating the value of this method.)

최종보고서 본문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Dr. Schimert는 당시의 실험 연구 활동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5].

“저자는 연구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심혈관외과에 관한 실험연구실을 만들어 많은 실험을 하였다. 개를 이용하여 인공심폐기 실험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이 기계를 임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최초의 심장수술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 관상동맥 혈류에 대한 실험도 생리

및 마취과와 협동으로 시행되었다. 심부전 실험, 특히 방실험에 관한 실험이 히스다발을 절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The writer has been interested in research. An experimental cardiovascular surgical laboratory has been established and a number of projects followed. Artificial heart and lung have been tested throughly on dogs. This machine is now in operational condition and may be used on clinical patients. The first open heart procedure in Korea utilizing an artificial heart and lung on a human patient was perform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onary blood flow studies were done in collabo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Physiology and Anesthesiology. Experimental cardiac arrhythmias, particularly atrio-ventricular dissociation has been produced by cutting the bundle of His. the effects of ventricular dissociation have been studied).

Dr. Schimert는 한국체류 중 국내 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26,27]. 이 중 <심장내 수술의 최근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당시 심장수술의 현황에 대한 리뷰 형식의 글로서 본문은 영어로 쓰여 있고 한글 요약문이 첨부되었다[27]. 이 논문의 서두에 삽입된 다음과 같은 저자에 대한 소개의 말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상 깊다.

“Dr. Schimert는 서울대학교 미국 미네소타 대학과의 교환계획에 의하여 심장외과의 교환교수로서 내한하여 앞으로 1년간 서울대학 외과에서 심장수술을 하게 되었다.

씨는 심장외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 Lillehei 교실에서 연구하였으며 금번 내한에 있어서는 심장수술에 필요한 제반기구를 가지고 오게 되어 심장을 열고 直視下에서 하는 수술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이 심장수술에 관하여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6)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

한국에서 돌아온 Dr. Schimert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Instructor를 거쳐(1960.1~1960.7), 조교수로(1960.7~1960.10) 재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Dr. Schimert의 한국에서의 경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외과과장 Dr. Wangenstein의 다음 편지에서도 단편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Dr. Wangenstein은 1960년 1월 11일자로 된 그의

편지에서 Dr. Schimert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6].

“Howard 학장에게 제출한 한국에서의 자네 경험에 관한 보고서가 방금 나에게 도착했네...(중략) 그 보고서는 자네와 과의 명예를 크게 높였네. 축하하네.

(Your report to Dean Howard on your experience in Korea has just crossed my desk. It is nicely done.....Your report does you and the Department great credit. Congratulations!).”

미네소타 대학 재직 중 Dr. Schimert는 뉴욕 Buffalo General Hospital 의 새로운 심장수술 프로그램의 책임자 자리를 제의 받고 1960년 10월부터 동 병원 및 뉴욕 주립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게 된다. 몇 차례 서신 교환과 직접 방문으로 결정된 당시의 정황은 1960년 8월 8일 그가 Buffalo General Hospital의 외과교수 Dr. Paine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6].

“외공학과, 인공신장 팀, 그리고 실험검사실 과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수술을 위한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성인 심방중격결손 환자들부터 먼저 시작하면 수술 팀과 관계 부서들에게 확신감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후천성 판막질환환자가 많다는 점과 전에 단락수술을 받은 활로씨 증후군 환자가 상당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는 동시에 더한 노력과 연구를 하게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대단히 힘들겠지만 저는 당신이 제시한 조건하에 이 기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Th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Engineering Division, the artificial kidney team, and the facilities of the experimental laboratory one could solidify a team to start on clinical patients. A number of adult atrial septal defects now on file may be used to get the service off the ground and establish confidence of the team and the referring services. The predominance of acquired valvular disease and the considerable number of tetralogies with a previous shunt operation constitute a problem but also a stimulus for harder work and more research. The program is challenging indeed, and I would like the opportunity 세 take it over under the conditions you have outlined.).”

뉴욕에서 Dr. Schimert 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1963년 이중판막치환술(double valve replacement), 1964년 삼중판막치환술(triple valve replacement), 그리고 1968년에는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을 각각 성공

하는 등 당시 초창기 심장수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업적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과정에 관해서는 Dr. Schimert가 미네소타 의대 비서실의 Mrs. Hans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961년 7월 25일자로 된 이 편지의 서두에서 그는 그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사용하던 책상 열쇠에 관한 비서의 질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고 아마도 한국에 놔두고 온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변상을 하겠노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뉴욕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6].

“이제는 조금 즐거운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의 심장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26번째 환자를 수술 했거든요. 물론 결과는 매우 좋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실망도 있었지만 최악의 순간은 지나고 이젠 10월까지 스케줄이 차 있어요. 8월에는 1주일애 2명씩 규칙적으로 수술할 예정이고요.....(중략) 그 외에 개심술이 아닌 심장수술도 많이 하고 있어요.

(Now let me get to happier territory. We are proceeding here in fairly crisp fashion to repair congenital and acquired heart lesions. Last week we have operated patient #26. Needless to say, we had a very nice result. In the beginning we had some disappointments. However, I feel that we are over the worst time and we have a stackful schedule to operate regularly 2 patients a week.....In addition, we have a number of other closed-heart surgical operations of lesser importance.)”

이 이후에도 Dr. Schimert는 이 비서를 통해 자신의 근황과 미네소타의 대학의 동정에 관한 소식을 간간히 주고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62년 10월 22일에 Dr. Schimert에게 보낸 편지에서 Mrs. Hans는 다음과 같이 미네소타 대학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6].

“당신의 수술성적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는 당신 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쁩니다.....(중략) 여기서의 소식 중에는 Dr. Dewall이 시카고 대학 외과 책임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식일 겁니다.....(중략) 우리는 Dr. Chris Barnard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미국에 도착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심한 황달과 간염으로 Capetown에서 상당 기간 입원 했거든요. 연구와 일에 너무 매달린 탓으로 생각됩니다만.

(Your patient case history certainly sounds impressive.

We are delighted to hear that everything is going so smoothly for you.....As for news here, there isn't a great deal other than that Dr. Dewall has been made head of the Department of Surger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We are looking forward to a visit from Chris Barnard, who I understand was to make the College Meetings and then come on here. Just when he will arrive, or if he did arrive, I am not sure, as he had been hospitalized in Capetown for a quite some time with a very severe case of jaundice and hepatitis. All this I understand was years of research and other work.)”

7) 그 후의 생활

뉴욕 Buffalo General Hospital에서의 오랜 공적으로 1985년에는 Dr. George Schimert Lectureship and medal conference가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그는 병원 생활 이외에도 취미 생활로 항해에 크게 심취하여 그의 아끼던 배(scooner) Vixen II 는 인터넷에 오를 정도로 유명하였다.

그는 은퇴 생활 중 2000년 12월 7일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찰 및 결론

흉부외과학은 그 특성상 수술 및 수술 전후 환자 관리에 내재된 난이도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근대의학의 초기에는 구체적인 임상과로 독립될 만한 환경을 갖지 못하였다. 일례로 불과 한 세기여년 전인 지난 1896년 <The Surgery of Chest>란 책에서 당시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Stephen Paget>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발견으로도 심장 상처를 봉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기술하면서 ‘심장봉합이라는 술식은 동물실험으로 시행될 수는 있으나 결코 임상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더욱 현대의학의 도입 즈음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특수한 배경 하에 해방 후에도 제반 여건의 미비로 흉부외과의 정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의학자들의 개척적인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의 흉부외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치 있는 노력의 과정을 되새기는 의도의 일환으로 흉부외과학의 초기 정립 및 성장 과정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일차 정리 된 바 있다[28].

본 논문 역시 한국에서의 흉부외과학 초기 정립 시기의 일부 과정을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 자료들의 보관, 계승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이는 흉부외과학이라는 한정된 분야에서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Dr. Schimert의 경우에도 그의 한국 근무지였던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자료는 매우 빈약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상대측인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적지 않은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어 이 글이 가능하였다. 특히 당시 Dr. Schimert에 연관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부터의 많은 개인 서신들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새삼 그들의 기록 보관 정신에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Dr. Schimert는 50년 전 1년 3개월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총괄 자문관의 자격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정 및 의학교육 분야에 참여한 것 이외에 임상 활동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당시 서울대학병원이라는 한 병원에 국한하여 근무하였지만 당시 흉부외과 관련 수술을 시행하던 병원의 수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활동이 초창기 한국 흉부외과에 적지 않은 의미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Dr. Schimert는 일반적으로는 심장외과 의사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폐 수술 등 일반 흉부질환 수술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수술 후 24시간 밀착 관리의 도입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8%로 감소하여 폐절제 수술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기술은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뜻 깊다. 특히 관심을 끄는 기록은 그가 당시 한국 최초로 주장된, 폐절제술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자료는 흉부외과 사료 상 대단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아쉽게도 비디오 자체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어떤 추가 자료도 확보할 수가 없었다. 또 한 가지 일반 흉부질환에 관한 흥미 있는 기술은 가성소다 식도협착 수술에 대한 언급이다. ‘가성소다로 인한 식도협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 식도수술에 관한한 서양의 평균 외과 의사들에 비해 수기가 더 훌륭하다.’ 라는 기술에서, 당시 일반인들이 자살 목적으로 가성소다를 흡입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식도협착의 만연 실태와 함께 적절한 임상적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난이도의 수술도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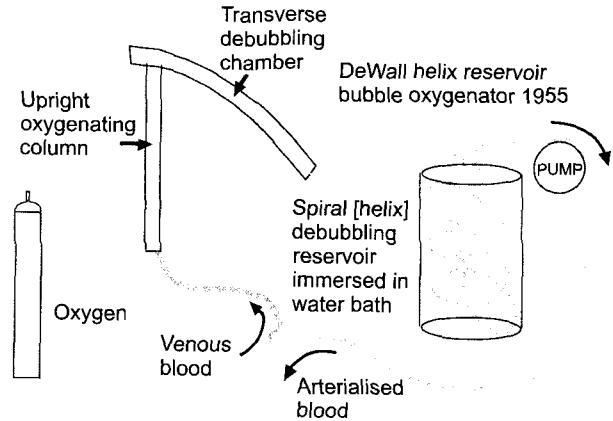


Fig. 3. A schematic drawing of Lillehei-Dewall helix-reservoir bubble oxygenator.

분히 소화해 낼 수 있었던 당시 선배 개척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Dr. Schimert의 족적이 보다 더 뚜렷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의 주 전공이었던 심장외과 분야에서였다. 그가 당시 세계 최고수준의 심장수술 센터였던 미네소타 대학병원의 Dr. Lillehei 문하에서 지도를 받던 중 한국에 왔던 정황을 고려하면, 그가 한국 근무의 기회를 활용하여 미네소타대학 식 개심술을 시도하려 했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당시 1953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Dr. Gibbon이 세계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성공한지 불과 5년 뒤의 상황이라 세계적으로 인공심폐기에 의한 심장수술에 관심이 집중되어있을 때였다 [9]. 더구나 미네소타 대학은 당시 Dr. Lillehei 문하의 Dr. Dewall이 개발한 기포형 산화기(Lillehei-Dewall helix-reservoir bubble oxygenator)로 많은 개심술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다[29]. 당시만 해도 산소 기포로 정맥피를 산소화 시키는 것은 색전증 문제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Dr. Dewall은 저혈조(reservoir), 기포 제거 장치(bubble traps), 기포제거제(defoaming agents)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산화기를 제작하였다(Fig. 3). 이 기포형 산화기는 또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실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구성 성분들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 뿐 아니라 열소독이 가능하고 조립이나 점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Lillehei-Dewall 기포형 산화기는 Sigmamotor 펌프와 함께 조합되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Dr. Schimert가 당시 한국에서 가져와 동물실험 및 임상

에서 사용했던 것도 바로 이 인공심폐기였다.

Dr. Schimert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 수술을 시행했던 것은 한국에 온지 일 년 남짓 되었던 1959년 8월 6일이었다. 심방중격결손을 가졌던 이 환자는 결과적으로 인공심폐기에 따른 기술적 문제로 수술 직후 6시간 만에 사망하여 장기 생존에는 실패하였다[18,19]. 그런데 이 수술의 시행 시점에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Dr. Schimert가 사망하고 난 뒤 실린 미국내 지역 신문과 병원 정보지 등의 부고기사에서 그의 경력을 언급하면서 '1957년 서울대학병원에서 아시아 최초의 개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1,2]. 이들 내용은 현재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전술한 내용대로 Dr. Schimert가 한국에 오기도 전이므로 연도 자체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심폐기를 이용한 아시아 최초의 심장수술은 이미 1955년 일본에서 처음 시도되고 이듬해인 1956년에 성공 사례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 관계도 맞지 않은 내용이다[30]. 이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기사화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쩌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규명의 차원과 함께 약간의 흥미로운 의문이 남는다.

한편 당시 남겨진 기록을 통하여 볼 때 Dr. Schimert는 단순히 유능한 임상사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및 실험연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그가 강조한 병상 옆 교육의 중요성, 시범 수술에 대한 열정, 학생교육에 대한 언급, 그리고 동물실험에 대한 관심 등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뛰어난 의학자로서의 그의 면면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학술적인 면이나 병원에서의 활동 이외에 Dr. Schimert의 한국에서의 개인적인 일상사에 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일부 증언에 의하면 그는 다소 과묵한 편이었으며 약간의 음주를 즐긴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 체류 중 한명의 한국 고아를 입양했다는 기록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글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추가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명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나친 부연 해석은 오히려 사족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가급적 그에 관해 입수된 자료들을 원전 그대로 충실히 옮기려 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은 독자들의 생각에 맡기고자 한다.

무릇 자그마한 일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는 기록이 될 때야만 비로소 진정한 가치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의 흉부외과에서도 이 글과 같은 작은 자료들이 계속 기록으로 축적되어 장차 어느 시점에 한국 흉부외과의 큰 흐름이 정리될 때 의미 있는 바탕돌들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Obituary. George Schimert, M.D. *Acclaimed Pioneer Heart Surgeon*. KALEIDA health, Dec 13, 2000. available at: <http://www.kaleidahealth.org>
2. Obituary. George Schimert. *BoothbayRegister* available at: <http://boothbayregister.maine.com> 2000;124:50.
3.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의학과 의사학 전공 의학박사 학위논문*, 2006.
4. University of Minnesota.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14 reports from April 19, 1955 to October 19, 1961.
5. Schimert G. *Final report of observations,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ct 7, 1959.
6. Personal letters; 25pieces communicated among G Schimert, HS Diehl, OH Wangenstein, JL Morrill, LM Hans, WH Sheldon, and JR Paine between Jan 27, 1958 and Oct 22, 1962.
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실사*. 2000.
8. Schimert G. Certain aspect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bubble and film oxygenators,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960.
9. Gibbon JH Jr. *Application of a mechanical heart and lung apparatus to cardiac surgery*. *Minn Med* 1954;37:171-85.
10. University of Minnesota. Eigh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April 19, 1958 - October 19, 1958, 1958.10.19, 54.
11. University of Minnesota. Ni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October 19, 1958 - April 19, 1959, 1959.4.19, 32.
12. University of Minnesota. Ni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October 19, 1958 - April 19, 1959, 1959.4.19, 45.
13. University of Minnesota. Ni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October 19, 1958-April 19, 1959, 1959.4.19, 48.

1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사. 2000, 22.
15. University of Minnesota. Te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April 19, 1959 - October 19, 1959, 1959.10.13, 48.
16. University of Minnesota. Te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April 19, 1959-October 19, 1959, 1959.10.13, 51.
17. University of Minnesota. Te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April 19, 1959-October 19, 1959, 1959.10.13, 52.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사. 2000, 134.
19. 홍창의. 우리나라 소아심장학 분야의 초창기의 회고 대한순환기학회 오십년사, 2007, 418.
20. University of Minnesota. Eleventh Semi-Annual Progress Repor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vering the period October 19, 1959-April 19, 1960, 1960.4.13, 51.
21. Schimert G. Final report of observations,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ct 7, 1959, 13.
22. Schimert G. Final report of observations,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ct 7, 1959, 14.
23. Schimert G. Final report of observations,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ct 7, 1959, 15.
24. Schimert G. Final report of observations,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ct 7, 1959, 16.
25. Schimert G. Final report of observations,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ct 7, 1959, 17.
26. Schimert G. *Clinical signs and symptoms in congenital heart diseases*. Med News, September, 1958.
27. Schimert G, 이찬범. 심장내 수술의 최근의 동향. 최신의학 1958;1:68-73.
28. 이성행. 흉부외과소사. 1989.
29. Dewall RA, Gott VL, Lillehei CW, Read RC, Varco RL, Warden HE. *Total body perfusion for open cardiotomy utilizing the bubble oxygenator, physiologic responses in man*. J Thorac Surg 1956;32:591-603.
30. Furuse A. *Dawn of cardiac surgery in Japan*. General Thorac Cardiovasc Surg 2007;55:2-5.

=국문 초록=

Dr. Schimert는 1918년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헝가리와 독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세계 이차 대전 직후 미국으로 이민 후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계속한 그는 1956년 당시 심장수술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미네소타 대학의 Dr. Lillehei의 지도하에 심장수술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인 1958년 그는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5개월 동안 그는 의학 총괄 자문관으로서 전반적인 의학 교육 및 행정에 참여하는 한편 당시 초창기의 흉부외과를 정립시키는데 공헌하였다. 특히 1959년 8월 6일에는 심방중격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한 개심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불행히도 수술 6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Dr. Schimert는 1959년 10월 미국으로 귀국하여 이듬해인 1960년에는 뉴욕 Buffalo General Hospital의 첫 심장수술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이후 동 병원에서의 기여 및 성과를 인정받아 1985년에는 그를 기념하여 Dr. George Schimert Lectureship and Medical Conference가 제정되었다. 이후 은퇴 생활 중 2002년 12월 7일 병사하였다.

- 중심 단어 : 1. 개심수술
 2. 역사
 3. 수술